



서울대동문전 '숨은예술가들' 성황리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가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와 공동주최한 서울대 동문 전시회 '숨은예술가들'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서울대 동문들로, 전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진심을 가진 서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화학전공 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해 작품활동을 하는 동문, 음악전공 후 아트페어 오프닝 연주에서 만난 화랑 주인과 인연이 되어 어릴 적 꿈이던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을 비롯해 의료인, 법조인, 교원, 사업가, 목사 등 총 82명의 다양한 전공과 직업적 배경을 가진 동문들이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특별 찬조로 미대 동문 작가 10명의 작품도 전시되었다. 13일 오후 4시에 개최된 개막행사에는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 송우엽 사무총장, 이승무 관악경제인회 사무총장과 본회 유인수 명예회장(66회화)을 비롯한 내빈 및 작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개막식 사전 행사로는 서울대 음대와 미대를 졸업한 박수빈(12국악) 동문이 참여



작가들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궁중음악 '취타'와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는 민요 '태평가를 연주하였다. 이어 본회 김홍규(83공예) 상임부회장의 경과보고 및 유인수 명예회장의 인사말, 이경형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의 축사, 김소선(63조소)·김병종(74회화) 작가의 격려사가 있었다. 또한 찬조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설명과 전시 참여 동문들의 소감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면서 레고블럭으로 키네틱아트를 선보이는 원종윤(99전기공학) 동문,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서 작곡의 세계와 미술의 세계를 연결한 작업을 선보인 백승우(82작곡) 동문 등이 전시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중인 KoN(이일근·00기악) 동문은 "음악은 완성되는 순간 기화되어 사라지지만 그림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음악에서 느낀 공허함이 미술로 보완이 되었다."며 작품을 소개했다. 개막식이 끝나고 열린



축하연에서는 케이터링이 마련되었으며, 서로 만날 기회가 없던 각 분야의 동문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많은 출품 작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본회와 총동창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전시는 수준 및 호응도를 살펴보기 위한 시범 전시로, 출품자들은 내년 4월에 한전아트센터(예정)에서 정식 개최될 '2024 숨은 예술가들'에 초대되며, 이때 역량이 뛰어난 동문은 본회 명예회원으로 영입해 함께 전시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회소식

**‘서울대미술인 1946-2023’ 발간
사전구매 신청안내**



본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을 발간해 11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도록은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되며 사전구매 신청을 받는다. 도록에는 시각 예술분야는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영화, 공연, 저서 등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023년도 신입동문까지 3000여명의 미대 동문의 실적이 수록된다. 본 도록은 대외적으로는 서울대 미대 졸업생들의 활약상, 대내적으로는 선후배간의 인지도 향상, 나아가 미대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도록은 페이지 당 9명의 이미지 및 경력이 수록되어 총 350p에 달하며 규격은 290x225mm이다. 사전신청은 부수 제한이 없다. 단, 올해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구매신청: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성명, 학번, 학과 명시)
사전회원구매가: 5만원(정가 15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문의: 02-555-1946

회장동정



명예의 전당 헌액

본회 권영걸 회장이 제9대 대한민국 디자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된다. 격년으로 1명의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를 선정하는데, 6개월 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명예의 전당(분당,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소재)에 흉상이 들어가고 공적이 기술된다. 후일에는 이 명예의 전당이 세종시에 건립될 디자인박물관으로 이전된다고 한다. 헌액식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코엑스 4층 401호에서 개최되며, 권회장의 제자들이 창작한 동영상 상영될 예정이다.

‘2023 AIoT Week Korea’ 축사

본회 권영걸 회장이 지난 10월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3 AIoT Week Korea’의 개막식에서 축사를 맡았다. 인공지능과 융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의미하는 AIoT은 산업·경제·사회 전 분야와 융합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이다. ‘AIoT 진흥주간’은 지능형 사물인터넷의 혁신을 지속해서 견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권회장은 축사에서 “도시 건축에 투입되는 첨단 기술은 국민 정주 공간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마트 건축물의 k-건축 수출 모델화, 그리고 AIoT 기술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 등 건축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나만을 위한 주문제작 반지

서울대미대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운영하는
에스아트몰에서 ‘ACCESSORY’ 카테고리
새롭게 선보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를 소장해보세요.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몰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

sartmall.com

모교소식

SNU 10-10 Project, 'Drawing with machines' 강연



지난 9월 26일 모교가 주관하는 SNU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제시카 인(Jessica In)의 강연 'Drawing with machines'가 줌 (Zoom) 화상 플랫폼을 통해 개최되었다. 제시카 인은 런던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가,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코디이자 교육자이다. 그의 특화 분야와 관심사는 건축을 위한 계산, 상호 작용 및 제작 방법이며, 기술의 표현력 있는 잠재력을 탐구한다. 제시카 인은 현재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아키텍처, 디자인 및 설치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런던의 바틀렛건축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바틀렛학교에 합류하기 전에는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였으며, Google Campus in Mountain View 및 Hudson Yards Vessel 조각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조정 및 제작을 담당하였다. 또한 Minifie van Schaik Architects에서 프로젝트 건축가로 활동하여 Edithvale Wetlands Centre 및 Wattle Avenue House를 포함한 AIA 수상작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멜버른의 RMIT 건축학부에서 학부과정 디자인 스튜디오를 주도하였다.

10월 '졸업하면 뭐할래?'



지난 10월 25일 모교 진로특강 '졸업하면 뭐 할래?'에서 지효근 테이블원 대표와 이성희 전시기획자가 강연했다. 지효근은 게임, 영화, 기타 대중 매체 컨셉 아티스트 및 아트 디렉터, IP 기획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어떤 컨셉 아티스트의 갈지자 커리어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성희는 전시 기획자이자 아트딜러이다. 'Design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오후 7시에 시작한 이날 강의는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총 세 시간 동안 화상 회의로 진행되었다. 강의자별 강의 시간은 한 시간 반이었다.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한국미술 워크숍' 모교 방문



지난 9월 7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한국미술 워크숍(Next Generation Korean Art Workshop)'의 참여 대학(원)생 18인이 모교 동양학과 교수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의 현대 미술'을 주제로 열린 본 워크숍 일정에 모교 동양학과 방문이 포함된 것은 미국 다투머스대학의 김성림 교수 덕분이다. 김교수는 올해 연구년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왔고, 모교 동양학과에서 강의를 맡으면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모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날 학생들은 김성희, 신하순, 조인호, 정해나 교수의 스튜디오를 차례로 방문했다.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세계



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점심을 함께했다. 한편 '차세대 전문가를 위한 한국미술 워크숍'에는 한국미술 및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이 있는 11개국 대학(원)생이 참가했다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밝혔다.



동양학과 스케치여행

지난 10월 6일 동양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낙성대공원으로 스케치여행을 떠났다. 스케치여행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낙성대공원에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각자 공원에 앉아 야외스케치를 했다. 이번 여행은 올해 봄 1박 2일로 다녀온 스케치여행 이후 두 번째 동양학과 단체 여행이다.

2024년도 제 39대 학생회 대표 선거

2024년도 모교 학생회 대표 선거가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다. 입후보는 오는 11월 6일까지이다. 투표는 학생자치 온라인 투표 플랫폼 유니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모교 학생회 대표 선거는 가투표율이 21.6%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98조에 의거해 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선거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학생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극예술연구회 정기공연



루나자에서 춤을

모교 극예술연구회 114회 정기공연 '루나자에서 춤을'이 지난 10월 12일에서 14일까지 인문관 7(14동) 지하 1층 인문소극장에서 열렸다. 브라이언 프리엘의 희곡 '루나자에서 춤을'은 아일랜드에 위치한 작은 집에 사는 다섯 자매의 이야기이다. 이재인(21서양) 동문이 이번 공연을 기획했고 김하연(21서양)동문이 연출을 맡았다. 박단비(21조소), 양희서(22서양), 문세희(21조소), 조민경(23디자인), 유영선(21서양), 고가현(23공예), 김은주(20디자인), 정인경(23디자인), 윤희경(20디자인), 도민주(22디자인), 박설아(20디자인), 신지호(22디자인), 김동현(19서양), 최윤진(22서양), 곽상아(22서양), 민정원(22조소), 정지후(21동양), 김나연(23동양), 김하늘(23동양), 이명원(22조소), 김민재(22조소), 김현진(21동양) 동문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한편, 1966년부터 쉬지 않고 공연을 올려 온 모교 극예술연구회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언제나 새로움을 좇으려 하는 도전 정신으로 대학 연극 예술을 선도해 왔다.